

기고



윤신근 수의사·동물학박사 한국동물보호연구회장

예쁘고 귀여운 것보다 건강한 아이를...

보통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보다는 날씨가 온화한 봄, 가을이 반려동물을 새로 들이기에 가장 좋은 계절로 여겨진다. 올봄에도 역시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려는 예비 반려인이 많다.

요즘에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며 주인을 잃은 유기동물을 품어주자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 일반적인 반려동물 입양 방법은 ‘펫숍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를 골라 구매하는 것이다.’

요즘은 소비자 권리가 강조돼 정부도 반려동물이 구매 후 15일 이내 발병 또는 폐사하면 동종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와 관련해 적잖이 분쟁이 빚어지는 것을 보면 예쁘고 귀여운 아이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아이를 찾는 것이 먼저다.

그렇다면 어디서 분양을 받아야 할까?

견종, 묘종별 유명 브리더에게 가면 그가 직접 번식한 아이를 구매할 수 있어 믿을 수 있지만, 가격 부담이 커 쉽지 않다. 결국 양심적이고 성실한 펫숍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건강한 강아지, 고양이를 골라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고른 강아지나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구매를 확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매하지 않은 아이를 내 마음대로 동물병원에 데려갈 수는 없으니 일단 내가 임신해 사고 나서라도 바로 병원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소비자 권리를 보장받을 길일 것이다.

건강한 아이는 일단 코가 촉촉해야 한다. 코가 건조한 것은 열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고 일어난 직후라면 코가 말라 있을 수 있지만, 하루 내내 건조하다.

눈은 맑고 초롱초롱해야 한다. 흐리거나 탁해서는 안 된다. 눈곱이 끼지 않았는지도 살펴보자.

귀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고, 냄새도 나지 않아야 한다. 입도 마찬가지로 깨끗해야 한다.

기침하는지도 세심히 지켜봐야 한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더라도 가볍게 목을 만지면 “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당연히 피해야 한다.

항문 주위가 깨끗한지 관찰하자. 지저분할 경우 설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설사는 장염과 관련이 있다.

피부와 털에 윤기가 있는지도 보자. 거칠다면 문제다.

펫숍의 양해를 얻어 손으로 들어보자. 활활함이 느껴지는 아이를 택해야 한다.

식욕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잘 먹는 아이가 건강한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다만 방금 밥을 먹고 난 다음이면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걸음걸이가 좋은 아이, 움직임이 팔팔하고 활기찬 아이 등을 눈여겨보자. 여러 마리가 함께 있을 때 잘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 혼자 있는 아이가 불쌍하다며 동정심에 택하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성격이 약할 수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경우 그러기 쉬운 탓이다.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암수 성별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간혹 암컷이나 수컷으로 여기고 키우다 한참 뒤 다른 성별이라는 것을 알게 돼 당황스러워하는 반려인도 있어서다. 특히 고양이는 개보다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워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고양이의 경우 “까칠한 것이 매력”이라고도 하나 분양 당시 사람에게 다분히 공격적인 아이라면 삼가는 것이 좋다. 강아지보다는 아니더라도 성격이 부드럽고, 사람을 잘 따르는 아이가 키우기에 알맞다.

자녀와 달리 반려견, 반려묘는 내가 원하는 아이를 고를 수 있다. 이는 자녀를 낳는 것보다 내 책임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 번 들이면 15~20년 동안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반려동물이다.

부디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골라 반려 생활 첫발을 잘 내딛기 바란다.

기고

안전한 봄철 캠핑,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상 기후로 인해 예전보다 이른 봄이 우리 곁에 찾아오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잊혀졌던 답답했던 마음이 겨우내 꽃망울을 머금다가 터트려버린 개나리와 목련의 경이로움을 느끼기 위해 모두가 바깥세상을 동경하며 봄을 만끽하고 싶어 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는 우리 곁에서 멀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이렇듯 마음 설레어지는 봄을 즐기기에 너도나도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해 한적한 곳에서 소수 인원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벼워진 옷감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캠핑을 즐기러 갔다가 뜻하지 않은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95건으로 그 중 51건이 2020년에 발생한 것이다.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등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제품, 식품, 동물 상해 등이 52건, 과열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한 봄철 캠핑을 즐길 수 있을까? 먼저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함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각 시설별로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는지, 방염천막 사용하고 있는지,

손전등 비치 여부와 비상시 출입구 식별 및 탈출이 용이도록 조치됐는지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둘째, 누전차단기의 설치 여부 확인하고 각종 전기(가스) 시설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셋째, 텐트 안에서 잠을 잘 때는 화재 위험이 높은 가스나 전기 난로 보다는 침낭이나 핫팩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밀폐된 텐트 내부에 숯불 등을 피워놓는 것은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높으므로 절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휴대용 버너로 음식을 조리할 경우 삼발이보다 큰 냄비나 불판을 사용하면 부탄캔이 과열되어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버너크기에 알맞은 냄비를 사용하고, 다 쓴 부탄 캔을 버릴 때는 반드시 화기가 없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구멍을 뚫어 폐기해야 한다.

안전을 위한 예방과 대응은 끝이 없다.

적당한 예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인 “존 그린리프 휘티어”의 말이 생각난다. 이 세상에서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슬픈 단어는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 한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이러한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지킨다면 내 가족, 지인들과 행복한 봄철 캠핑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박철희/화순119안전센터장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 교통사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2%이면 ‘고령화 사회’, 20.0%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하였고,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노인 교통사고이다.

2019년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는 전체 1천302명이고 그 중 65세 이상이 743명으로 57.1%를 차지했다.

이는 노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4.6명인 것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를 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노인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인 인구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데 도로 위의 시한 폭탄으로 불리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노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관련 단체들이 경로당 안전교육과 노인 명예경찰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 무단횡단 하지 않기, ②

횡단하기 전 전후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안전을 확보한 후 건너기, ③ 야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밝은 색 옷을 입기, ④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안전등, 야광반사지를 부착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노인 교통사고 줄이기는 남의 말이 아니다. 경찰과 관련 단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운전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내 부모, 내 가족의 일처럼 나서야 한다.

채정목/여수경찰서신기파출소경사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